

바이애슬론 여자 계주 '은'...전남 예카테리나 2번째 메달



계주 4×6km 고은정·아베 마리아·정주미 활약 선두로 달리다 19.9km 사격 구간서 따라잡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로 한국 바이애슬론의 새로운 역사를 쓴 전남의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가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뒀다.

예카테리나는 13일 중국 헤이룽장성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동계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계주 4×6km 경기에서 고은정(전북체육회), 아베 마리아, 정주미(이상 포천시청)와 은메달을 합작했다.

앞서 예카테리나는 지난 11일 같은 곳에서 열린 여자 7.5km 스피리트 경기에서 22분 45초 4의 기록으로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동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바이애슬론 선수가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두 개를 목에 건 것은 이번이 최하다.

또 한국 바이애슬론이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두 개 이상을 따낸 것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던 1999년 강원 대회 이후 26년만이다.

이번 대회 여자 계주 4×6km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1시간 29분 27초 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중국(1시간 29분 6초 3)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고은정이 안정적인 경기를

펼쳐 3위에서 1위로 치고 올라오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어 바통을 넘겨받은 예카테리나는 11km 지점까지 1위를 유지했다.

예카테리나는 11km 지점에서 잠시 2위로 밀려났으나 곧바로 스피드를 높이며 12km 지점에서 선두권을 유지했다.

세 번째 주자 아베 마리아도 1위를 지키며 차를 넘겼고, 마지막 주자 정주미가 그의 첫 번째 사격 구간인 19.9km 지점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따라잡히며 3위로 밀려났으나 22km 지점에서 역전에 성공해 카자흐스탄을 제치고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3위 카자흐스탄은 1시간30분1초9에 결승선을 끊었다.

전남 바이애슬론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벨리키 우스투크에서 태어나 2016년 대한민국으로 특별귀화해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예카테리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15km 개인 경기에서 16위를 기록하며, 한국 여자 선수 중 올림픽 역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 바이애슬론의 중심 선수로 자리 잡은 그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바이애슬론의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

한국 바이애슬론 대표팀은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한국의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가 13일 중국 헤이룽장성 야부리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4x6km 계주 경기에서 코스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이날 열린 남자 계주 4×7.5km에서 한국은 1시간 30분 22초 5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일본(1시간 24분 20초 3), 카자흐스탄(1시간 25분 18초 7), 중국(1시간 25분 32초 7)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피겨 김채연, 여자 싱글서 역전 금메달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김채연(수리고)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세계 최강' 사카모토 가오리(일본)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채연은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9.07점, 예술점수(PCS) 68.49점을 합쳐 총점 147.56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 프로그램 71.88점을 합한 최종 총점 219.44점으로 사카모토(211.90점)를 누르고 우승했다.

한국 피겨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건 1999 강원 대회 양태화-이정균(아이스댄스 동메달), 2011 알마티 대회 박민정(여자 싱글 동메달), 2017 삿포로 대회 최다빈(여자 싱글 금메달)에 이어 4번째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 금메달을 14개로 늘렸다.

동메달은 일본의 요시다 하나(205.20점)가 차지했고,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서영(수리고)은 150.54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

김채연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쇼트프로그램(71.39점), 프리스케이팅(139.45점), 총점 최고점(208.47점-이상 종전 점수)을 모두 경신했다.

반면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거둔 사카모토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 실수를 범하며 고개를 떨궜다.

사카모토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전체 1위인 75.03점을 받았으나 프리스케이팅은 136.87점에 그쳤다.

24명의 출전 선수 중 23번째로 은반 위에 선 김채연은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내면의 속삭임'(Whisperers from the heart)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두 바퀴 반을 도는 더블 악셀로 힘차게 출발했다.

이어 트리플 루프, 트리플 플립-더블 토티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살코를 쉴 새 없이 펼치며 수월했다.



피겨 김채연이 13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흔들림 없이 4개의 점프 과제를 깔끔하게 성공한 김채연은 플라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ンを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연기했다.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연기도 완벽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를 달린 김채연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완벽한 연기로 사카모토를 10점 이상 따돌리며 전세를 뒤집고 시상대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페퍼스 '10승·5위 탈환' 두토끼 잡는다

오늘 현대건설과 경기

페퍼축은행 AI페퍼스가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을 상대로 '구단 최다' 10승에 도전한다.

6위에 자리한 페퍼스(9승 18패·승점 27)는 14일 오후 7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3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17승 10패·승점 53)와 경기를 펼친다.

페퍼스는 지난 9일 열린 V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 셧아웃 패를 당하면서 연승 잇기에 실패했다.

이날 페퍼스는 테일러가 개인 한 세트 최다 득점인 13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박정아-이한비(각 7득점), 박경현(6득점) 등 선수단의 총 득점이 한 자릿수에 그쳤고 1, 2세트에서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는 힘들었다.

페퍼스는 이번 시즌 목표표 세웠던 두 자릿 승수, 10승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난 6일 GS칼텍스 전 승리를 통해 5위를 되찾았던 페퍼스는 승점 1점 차로 턱 밑까지 추격하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10승 17패·승점 29)가 11일 현대건설에 3-1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 번 5위 자리를 내줬다.

5연패에서 탈출한 뒤 다시 패배를 기록하며 기세가 한풀 꺾인 페퍼스의 5위 탈환을 위한 이번 경기는 현대건설에게도 중요하다.

승점 3점 차 3위였던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

(19승 8패·승점 53)가 지난 13일 IBK기업은행 알토스에 셧아웃 승리를 거두고, 승수에서 뒤진 현대건설을 3위로 밀어냈다.

2위 자리를 내준 현대건설에는 부상 약재도 있다.

'공수 살림꾼'이라 불리는 아시아쿼터 위파위가 지난 7일 정관장과의 원정경기에서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들것에 실려 나갔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현대건설에서 뛰고 있는 위파위는 득점 17위(264점), 서브 리시브 효율 5위(37.30%), 수비 7위(세트 당 5.520개) 등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팀을 뒷받침 해왔다.

또 '블로킹 퀸' 양효진이 허리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완전한 기량이 아니고, 상대 '외국인 주포' 모마는 경기 중 동료와 어긋난 호흡으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전력에 균열이 생겼다.

페퍼스에 이번 경기는 10승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난 2023-2024시즌 V리그 통합우승을 이뤄냈던 현대건설에 맞서 올 시즌 잘 싸워왔다는 점도 기대를 걸 만하다. 이번 시즌 현대건설과의 상대 전적은 2승 2패지만 최근 2차례 연달아 승리를 장식한 바 있다.

페퍼스가 약재를 맞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처음 '10승 고지'에 오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전남 '펜싱 꿈나무'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출전

풍암고 장재호·전남체고 김승주

광주·전남의 '펜싱 꿈나무' 풍암고 장재호와 전남체고 김승주가 14일 쿠웨이트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장재호와 김승주는 지난달 13일 열린 '2025 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유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2008년생인 장재호와 김승주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다.

장재호는 "간절함이 있었다. 이제 유소년 대표로서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한다. 이번 경기 잘 치르고 앞으로 훈련 열심히 해서 체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승주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 따오는 게 목표다. 지난해에도 유소년 대표로 선발됐었는데 첫 국제대회여서 개인전이 끝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환희 : 양홍길 개인전

일시 : 2025-1-15(수) ~ 2025-2-16(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일시 : 2025-02-21(금)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문의 : 062-613-8241

